

## 주 5일 수업제, 위기인가? 기회인가?

조 은하 (목원대학교)

### I. 새로운 변화의 시작: 주 5일 수업제

2011년 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서 조사한 “2011년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에서 조사대상 OECD 23개국 중에 3년 연속 꼴찌를 하였다. 1위인 스페인보다 47.62 포인트 낮았고 평균에서도 35점 가량이나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치열한 입시 스트레스, 부모들과의 소통의 부재, 외모지향적 사회적 풍토 속에서의 자신에 대한 불만족 이러한 것들이 주요한 요인들로 지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었다. 어린이, 청소년들이 그들은 탈출구가 필요하다고, 자신들을 세워갈 새로운 힘이 필요하다고 호소하는 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었다.

“2007 대한민국 초당으로 산다는 것은”이라는 방송에 보면 한 평범한 초등학생의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온다.

내가 잊고 싶은 두려움은(이번에 친 시험 점수다)  
우리 가족이 나에게 대해서(공부 잘하는 것만 밝힌다)  
나의 가장 큰 결점은(공부를 못한다는 것이다)  
언젠가 나는(공부 제일 잘하는 사무개를 이기고 싶다)

그리고 완성되지 못했던 한 문장

“나도 물고기처럼 자유롭게 날고 싶다”

-학습 부담으로 자살한 어느 초등학생의 유서 중-

초등생 53%가 가출 충동, 27%가 자살 충동을 느낀다. 이유없이 아플 때가 많았고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해방구는 인터넷과 컴퓨터 게임이었다. (‘2007 대한민국 초딩으로 산다는 것’은 중) 평범한 초등학생들의 모습이었다.

우리의 아이들은 외롭고 힘들고 아파하고 있는 것이다. 과잉연결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관계의 결핍에 허덕이고 있다. 경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존재감조차 없는 학교, 입시전략연구 소처럼 되어버린 가정, 무한한 자유경쟁에서 강자독식의 삶의 표본을 보여주는 사회현상. 그 어느 곳에서도 아이들에게 공감, 배려, 연민, 조화 등 자아정체감(self-identity)이 형성되어야 하는 시기에 배우고 익혀야 하는 삶의 가치들을 가르쳐 주지 못하고 있다.

우리 시대 어린이, 청소년들의 위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의 위기이며 문화의 위기이며 교육의 위기이다. 이러한 교육적 위기 속에서 새로운 변화의 때가 시작된다. 그것은 바로 주 5일제 수업의 실시이다.

최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시한 조사는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재확인시켜주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1) 그중에서도 2012 전면실시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교사는 81.5~84%가 찬성하는데 반해, 학부모와 학생은 각각 61.4%~65.2%, 54.5%~61.7%에 불과한 찬성률을 보여주고 있다. 주5일 수업제를 찬성하는 사람들도 시행에 대하여는 크게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주 5일 수업제가 갖는 교육적이며 사회적인 다양한 가치와 긍정적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회적, 교육적 여건이 아직도 충분히 준비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의견은 기독교교육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이 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새로운 변화를 기독교교육을 위한 또 하나의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를 위한 몇 가지 지침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주 5일 수업제의 의미

용어가 시사하는 바대로 학교의 수업 운영을 주 5일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현재 6일의 운영 제도에서 5일 운영제로 변경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주 5일 수업은 학교의 주 운영일수를 줄인다는 뜻이지만 단순한 감축의 의미 이상의 것이다.

주 5일 수업제는 교육을 학교교육 중심으로 보던 관점에서 가정-사회와의 연계 관점에서의 전환과 체험학습, 평생학습사회의 관점을 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주 5일 수업제가 수반하는 여가일의 증대는 교육의 장을 학교 밖으로 까지 확대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장소에서의 다양한 체험 활동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늘어난 휴일은 그 활용여부에 따라 제한된 학교안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다양한 직업과 연령층의 사람들과의 만남, 다양한 장소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 5일 수업제는 다음과 같은 교육적 의의를 갖는다.

### 1.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강화

주 5일 수업제는 주 2일의 휴일이 생겨나고 학생들은 짝찬 학교 일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필요한 활동들을 할 있는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체득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시간 계획원칙, 방법, 또한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인식하고 시행할 수 있는 실천력 이러한 능력들을 갖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체험학습의 강화

체험학습은 모든 학습의 토대를 이루는 주요한 학습과정이다. 체험학습은 ‘개인의 내적 세계와 외부세계 사이의 능동적인 상호관계를 인식하는 과정이다.’ 체험은 새로운 체험을 통하여 기존의 체험세계를 다양하게 확장시키고 심화시킨다. 또한 각각의 단편적인 체험들을 넓은 사고의 틀로 통합시키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체험학습은 모든 학습의 기초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체험학습은 교과서를 중심으로 하여 교사가 전수하는 지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아니라 직접적인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기존의 경험의 틀을 확장시키는 과정이다. 따라서 체험학습은 일상생활의 상황이나 맥락을 중심으로 오감을 사용하여 배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앎과 삶의 매개의 과정이 더욱 구체적일 수 있다.

인간에 대한 단편적 이해, 즉 지식과 사고는 이성의 역할이며, 행위는 몸의 역할이라는 이분법적인 도식에 의하여 교육은 몸과 체험의 문제이기에 앞서 사고와 지식의 문제로 간주해 온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나 사고와 감정, 실천이 통합되는 전인적이고 통전적인 배움을 위하여 체험학습은 필요 적절한 교육과정이다.

체험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생각, 느낌, 호기심, 창조력등이 계발될 수 있다. 주 5일 수업제는 학교교실에서 하기 어려웠던 활동을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기회이다. 교육장소가 학교 밖으로 확대되고 다양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으며, 활동범위의 내용도 풍부해 질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 사회적 관심사들에 대한 직접적 경험들을 통해 다양한 관계능력을 향상시켜 갈 수 있을 뿐 아니라 공감능력을 배울 수 있다. 간접경험에 편중되어 있던 학교교육의 한계를 휴일의 직접 체험활동을 통해 완화시켜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기독교교육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전통과 교리, 성서에 대하여 스토리로 배우던 것을 직접 방문하고, 체험하고, 실천해 봄으로써 실천적 신앙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일주일에 주일 한번으로만 이루어지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기독교교육의 주요한 가치 및 다양한 교육내용들이 체험학습이라는 다양한 교수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주요한 기회가 되는 것이다.

### 3. 학교- 가정- 교회- 사회의 교육 공동 시스템 구축

교육의 이상적인 구조는 학교와 가정과 교회, 사회가 각각 그 역할을 균형적으로 하는데 있다. 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은 ‘입시 중심’의 교육이 되어 많은 학생들이 그 구조 안에서 교육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 가정은 입시전략 연구소와 경제공동체로서의 기능 외 교육적 기능, 문화적 기능은 상실하고 있다. 교회도 기독교교육의 범위가 공과공부 위주의 강의식 교육으로 축소되어 학습자의 전인적 성장 및 통전적 신앙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 5일 수업제는 사교육의 강화 및 입시 교육의 사교육화를 더 부추기 부정적 측면을 초래 할 수 도 있으나 학교와 가정과 교회,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 역할 및 교육 구조의 공동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통전적이고 전인적인 교육을 가능케 하는 교육 혁신의 주요한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 4. 교육 방향성의 변화

주 5일 수업제가 시작되면 학교는 교과 및 교육과정 운영전체를 학교여건에 기초하여 재조정하게 된다. 이것은 지역과 학교의 여건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구성 운영할 수 있는 실제적인 상황이 만들어 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단순히 학습의 방법이나 교육 경험의 내용이 다양화 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학습과 교육의 개념이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의 교육 방향이 달라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디지털문화, 다원화, 다문화 사회 속에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미래의 동력들은 창조적인 인간, 관계적인 인간, 공감하는 인간, 의미를 추구하는 인간, 놀이하는 인간, 조화를 이루는 삶을 추구하는 인간상 등이다. 이러한 미래세대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지식 전달위주의 교육체제를 탈피하여 경험적이고 관계적인 교육, 지성적이지만 감성적인 부분까지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교육, 개인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지만 공동체적 삶을 통해 행복과 의미를 찾아 갈 수 있는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의 장, 교육의 내용, 교육의 방법과 같은 교육 과정이 확장되고 다양화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 5일제 수업제란 학교가 담당해야 하는 교육적 역할이나 내용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의 시간들을 유효하게 보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학교 밖에서의 경험들을 학교 수업과 연계하여 수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교육의 역할 및 그 내용에 있어서도 역할확대의 기회일 뿐 아니라 기독교교육을 통하여 제자직과 시민직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독교인들을 양성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기회이다.

주 5일 수업에 대비하여 토요교육의 필요성은 모두 인식하고 있으나 개 교회마다 시행하고 있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는 인적인프라, 물질적 인프라등과 함께 프로그램의 한계 및 내용의 빈곤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토요교육운영의 요소가 무엇인지 또한 그 요소 및 원칙을 바탕으로 모델을 설계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 III. 주 5일 수업제에 대비한 교회의 효율적 준비방안

#### 1. 주 5일제 수업을 위한 인프라 및 지원체계의 확립

주 5일 수업제를 맞이하여 교회 안에서 이를 교육적 기회로 확립시키기 위해 가장 시급하면서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교육적 인프라 및 지원체계의 확립이다. '인프라' 라는 용어는 영어의 'infrastructure'의 약칭으로 '밑의' '기반의' 뜻을 가진 라틴어의 'infra'와 '구조' '조직'의 의미인 'structure'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이다. 통상적으로는 특정 목적 실현을 위한 기반의 의미로 사용되는 매우 광의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서는 유형적 무형적 개념을 포함한다.

주 5일 수업제와 관련하여 인프라란 주 5일 수업제를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 위한 사

회적 기반으로 행정적, 제도적, 인적, 물적, 재정적, 시설적 측면은 물론 교육과정, 체험활동 프로그램 등 다양한 무형적 요소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주 5일 수업제의 근본목적은 이해하고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토요일 프로그램이 다양화되고 접근 가능성이 높아져야 한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자들이 창의성, 인성, 영성을 신장시켜 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회자체뿐 아니라 연회 및 교단과의 연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인프라 구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인적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모든 교육의 성공여부는 교사와 교육 내용에 그 핵심역량이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교회교육을 강화해 갈 수 있는 제도적, 재정적 시설적 측면들을 단,중, 장기 계획을 통해 마련해 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주 5일 수업은 사회교육의 강화의 의미 또한 포함되는 것이다. 교회가 지역공동체에 있어서 교육적 역할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문화적이고 교육적인 인프라를 확립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이러한 인프라 확립을 통해서 토요일 프로그램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에서부터 지역사회의 교육적 자원 개발 및 활용 등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설계될 수 있어야 한다. 주 5일 수업제가 실시됨에 따라 각 지자체의 박물관, 동물원, 식물원, 도서관 등 다양한 사회적 기관들이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동물원에서도 단순한 관람차원을 넘어서 교육적 차원의 다양한 활동들을 제공하여 주 5일 수업제를 대비한 교육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교회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교육과학 기술부나 각 지방자치체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체험활동 및 지역적 교육인프라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 예를 보면 국립 중앙과학관의 다양한 창의학습 체험 프로그램에서는 주말 창의 체험 학습으로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세계 10대 과학 탐구, 우리겨레 10대 과학 탐구, 과학, 문화, 예술 융합 체험 학습 프로그램, 신문활용교육, 악기참구 (오카리나, 기타, 국악기 등), 예술탐구 (종이 접기, 공예, 도자기 만들기 등) (반갑다 주 5일 수업, 과학관이 앞장선다, 수요자 중심의 주말 창의 체험 시행/ 교육과학기술부, 2011)

## 2. 주 5일 수업제에 따른 다양한 교육모형 개발

주 5일 수업제에 따른 다양한 교육과정 모형을 개발, 보급하는 것이 시급하다. 주 5일 수업제가 가지는 주요한 교육적 의미중 하나는 학습방법의 변화이다. 경험적이고 자발적인 학습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다양한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학교, 가정, 사회, 교회의 연계성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더 나아가 지역공동체와의 긴밀한 협조와 연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다양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먼저 교육의 대상을 교회 내에서 교회 밖으로의 전환이며 교육의 장 또한 교회용도에서 지역사회로 개방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의 내용 또한 성경중심의 교육뿐 아니라 다양한 학습주제들에 대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 3.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체계적 대책 마련

저소득층 자녀 및 맞벌이 자녀 등 토요일에 나홀로 지내야 하는 사회적 배려 학생에 대한 대

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주 5일 수업제로 인해 교육적 격차가 확대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돌봄’을 넘어서는 교육이 이루어져서 학습자들의 특기와 적성을 신장시켜주는 교육기회가 되어야 한다. 핵심적인 과제는 토요일휴업일이 저소득층 자녀나 맞벌이 부모의 자녀들에게 돌봄과 교육의 공백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에 대한 돌봄의 문제나 사교육 문제들이 과열되지 않도록 하는 소극적 대응에서부터 휴일에 대한 다양하고 풍부한 활동 프로그램 등 사회적 인프라를 정비하는 적극적인 대응까지가 준비되어야 한다. 이것은 교회의 목회적 차원에서 보았을 때 교육과 봉사, 교육과 선교를 통합적 차원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 IV. 주 5일 수업제를 맞이한 교회의 교육적 역할

교회가 주5일 수업제를 맞이하여 교육적인 역할을 할 때에 그 역할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 1. 휴업 일에 대한 방향과 방법에 대한 지도와 안내 (학부모와 학생)

주 5일 수업제를 맞이하면 자연스럽게 가정에서의 교육적 기회가 많아지고 동시에 교육적 역할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 이것은 주5일제 수업을 맞이하는 그 사회적, 교육적, 신앙적 의미에 대한 부모들의 확실한 인식정립 및 가치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회는 주 5일 수업제를 위한 학습자를 아동과 성인까지 포함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늘어난 교육시간속에서 어떻게 교육할지에 대한 교육 가치 및 방향성,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습자들이 주체적인 시간 관리 및 자기 주도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부모들의 역할,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가족들과 함께 기독교적인 여가문화, 놀이를 통한 교육 등 다양한 주제들에 접근함으로써 가정교육의 교육적 신앙적 토대들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 2. 휴업일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기획과 운영 (교회여건과 특성 기반)

이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학습자들의 요구분석을 통하여 교육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적극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주말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의 기회와 질’을 확보하는 것이다. 주5일 수업제가 추구하는 미래 인재교육으로의 교육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목표에서 볼 때 경험의 기회와 질의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험의 기회는 원하는, 그리고 필요한 누구에게나 용이하고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험의 장소, 프로그램을 어디서나,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 동시에 경험의 질이 확보되어야 한다. 경험의 질을 확보한다는 것은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기획하는 것임과 동시에 특정한 경험만을 강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다양한 경험들이 기독교적인 가치와 성서적인

삶의 맥락 속에서 학습자들이 해석하고 경험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프로그램의 기획은 다음과 같은 사안들을 염두에 두고 기획되어야 한다.

### 1)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

우선 모든 사람들이 주의를 끌 수 있는 관심있는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참가자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각기 색다른 체험을 하면서 차츰 교육이 목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간다. 이러한 주제를 선정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요구조사 (needs assessment)'이다. 즉 일방적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할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또한 무엇일 필요한지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이 필요하다. 즉, 반드시 배워야 하는 교육내용과 자발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교육내용이 조화를 이루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2) 유의미한 경험이 될 수 있는 교육.

이를 위해서는 참가자들이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듣기만 하지 않고, 가능한 한 스스로를 발견하고 느낄 수 있도록 실천과 체험의 시간을 갖게 하는 활동이 중요하다. 또한 참가자들의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하며, 지도자도 즐거움과 자발성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능하다면 프로그램이 계획되는 과정에 학습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갖는다면 더욱 유의미한 교육경험이 될 것이다.

### 3) 참가자 상호간 체험과 감동을 나눌 수 있는 교육

동료, 친구, 가족들과 함께 하는 활동은 상승효과를 발휘하며 공유하는 것만으로 몇 배의 힘을 발한다.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의 개성을 발휘하고 서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하여 참가자들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이야기 하는 활동 (Show& Tell)과 아울러 실천한 결과와 체험을 함께 나누는 (Do & Share)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장체험학습프로그램개발연구/환경부)

### 4) 삶의 다양한 가치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

오늘날 입시 중심의 교육이 갖는 가장 위험한 한계는 삶의 다양한 가치들을 고민하고 체득하고 실천할 수 있는 가치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삶의 주요한 가치들 배려, 연민, 평화, 공존, 사랑, 인내, 겸손, 조화등 어린 시절부터 가치교육을 통해 성품으로 자리잡아야 하는 삶의 태도들이다. 이러한 가치들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문학작품이나 영화, 또는 경험들을 통해 교육할 필요가 있다.

### 5) 함께 즐길 수 있는 건전한 놀이를 통한 만남을 장려하는 교육

함께 즐긴다는 것은 또래집단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세대 간 만남이 이루어 질 수 있는 프로그램 및 놀이를 개발하는 것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면, 토요일 도보산책, 등산, 요리하기, 봉숭아물 들이기, 천연염색하기, 성지방문, 역사기행, 문화기행, 문학기행 등등 또래와 또래, 1세대와 3세대, 2세대와 3세대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또래교육 및 간세대 교육을 동시에 시행할 필요가 있다.

## 6) 동아리 활동을 통한 특기개발 및 인간관계 교육

소질개발 활동, 동아리 활동들을 더욱 활성화하고 발표기회를 확대해 학생들의 특기 및 취미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건전한 인간관계의 유형들을 배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별히 청소년 시기는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며 이때 가장 의미있는 사람은 바로 “친구”이다. 현 우리의 교육 및 사회적 구조가 청소년기의 친구들과의 교류 및 활동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다. 친구관계의 갈등이나 폭력은 평소 친구들과의 관계를 맺어나가는 방식을 올바르게 건강하게 가질 수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토요 프로그램은 “인간관계”를 맺어나가는 방식, “의사소통”의 방식, “상호작용”들의 경험들을 쌓아 갈 수 있는 주요한 기회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동아리 활동, 준거 집단간의 활동 공유 등을 통해서 상호관계에 대한 원칙들과 방법들에 대하여 익혀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과잉연결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관계의 결핍 속에 고통스러워하는 오늘날의 세대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교육활동이다.

## 7) 진정한 의미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

주 5일 수업은 신앙교육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 (제자직)을 배우는 기회임과 동시에 일상적 삶의 현장에서 기독교적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민(시민적)으로의 삶을 교육하는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다. 우리 주위의 이웃들의 어려운 삶들을 같이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활동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물건 하나를 구입하더라도 공정무역 물건을 통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선한 소비운동, 무관심 버리기 운동<sup>1)</sup>과 같은 삶의 일상적 영역에서 기독교적 삶의 실천 문제들을 고민할 수 있는 주요한

---

1) 20대 중반의 영화 및 뮤직 비디오 감독인 ‘신디로즈’는 데이비드 코튼의 저서 <기업이 세계를 지배할때>를 읽고 큰 감명을 받는다. 그는 부정부패, 기후변화, 가난, 불평등 같은 부당한 일이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시간만 보내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된다. 또한 사람들이 그러한 사회 현실에 대하여 관심이 없기 보다는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점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그러한 것에 신경 쓸 여유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그는 “무관심이야말로 가장 큰 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일단 신경경제단 (New Economics Foundation) 아이디어를 실천으로 바꾸는 싱크탱크)에 접근했다. 그리고 신 경제재단에서는 그녀가 제안한 안티 애퍼티 (anti apathy) 개념을 받아들여 일련의 캠페인을 펼치기 시작한다.

안티 애퍼티 (anti apathy) 운동은 특정주제에 관해 저명인사들을 패널로 구성하고 단편영화 상영, 라이브 음악 연주를 비롯하여 편안한 분위기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어울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리하여 입을 옷에서부터 먹는 음식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 이면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 이러한 모임은 성공적으로 끝나며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타인에 대한 그리고 사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성공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무관심 버리기”운동을 진행한다.

“무관심 버리기” 10가지 차원

1. 낡은 것을 착용하고 사용하는 것을 부끄러워 하지 않기
2. 에너지를 아끼고 절약하기
3.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물 절약하기
4. 공정무역을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고 물건을 재활용하기
5. 가능한 한 비행기를 타기보다는 기차를 이용하여 이동하기
6. 수입된 식물성 음식을 이용하기 보다는 계절음식과 먹기
7. 남은 잔돈을 저축하여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
8. 공정무역 제품 이용하기
9. 무관심 버리기 클럽 등에 가입하여 활동하기



주제들을 다루어 주는 교육들이 교회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3. 교회 밖 프로그램에 대한 연결 (코디네이터 역할)

주 5일 수업제는 사회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변화이므로 각 지역자치 단체 및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등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다. 교회가 이러한 외부 프로그램과 학습자를 연결시키는 교육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다. 따라서 각 지역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고 교회상황에 적합한 교육활동에 참여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코디네이터로서의 연결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를 통한 교육후에 기독교적 관점과 가치로서 그 경험들을 다시 의미화 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필요하다.

### 4.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대한 협력과 참여

교회가 지역사회와 밀접한 연계성을 갖고 지역사회에 어떻게 공헌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오늘날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질문중의 하나이다. 주 5일 수업제를 접근하는데 있어서도 교회가 교인들만을 대상으로 교육적 활동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역사회의 요구와 필요를 분석하여 협력적 관계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일반 사회기관과도 가능한 것이겠으나 지역 교회와 교회가 연대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핵심역량과 오픈소스, 연합 네트워크라는 용어로 표현 될 수 있다. 교회가 모든 것을 제공해 주려고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지도자는 교회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핵심역량을 개발하고 다른 영역은 다른 교회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교회간의 신뢰와 윤리에 기초하여야만 가능한데 이러한 네트워크를 렉스밀러는 ‘커버네트워크(covenetwork, 언약적 네트워크) 라고 표현한다.

## V.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본적 틀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그 기본적인 틀을 설계하는 것은 신학적, 교육학적, 사회학적, 심리학적 등 다양한 이론적 기초위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추구하는 것이 통전적인 신앙이라고 할 때에 구체적 프로그램은 신앙형성을 위한 다양한 영역, 즉 지성적, 감성적, 관계적, 실천적 차원 등이 고려되어 균형을 이루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통전적 신앙을 형성시키는 교수-학습과정의 5가지 영역 (Sara little을 중심으로) 으로 구체적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은 구체적 프로그램을 설계하기 위한 절차이다.

1) 제목정하기: 각 프로그램의 명칭을 학습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엔 부제를 달아 구체화 한다.

---

10. 소유물을 단순화 하고 꼭 필요한 물건만 가지고 있기

2) 취지와 목적 설명하기

해당 프로그램이 가지는 특징을 설명한다. 이 항목은 프로그램을 처음 접하는 단계에서 제목을 제외하고 가장 먼저 대하는 항목인 만큼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교육적 의미나 인 용, 혹은 역사적/현실적 실제 상황들을 넣어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킨다.

3)활동영역 및 교수방법 분류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구분	교육적 의미	구체적 예시
<p>믿기와 생각하기/정보처리과 정모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자들이 사고하며, 정보 처리를 위해 자신들의 고유한 체계를 발전시키는 법을 배우도록 돕는 일에 관심을 가진다.</li> <li>▪ 다양한 지식을 제공하고 합리적, 논리적, 창의적,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li> <li>▪ 정보를 통해 궁극적 실재와 연결하고 사고를 통해 참된 앞에 도달하게 하고자 하는 방법이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경공부</li> <li>▪ 독서토론</li> <li>▪ 주제토론</li> <li>▪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li> <li>▪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li> <li>▪ 역사기행</li> <li>▪ 역사 속에 만나는 인물들</li> <li>▪ 성경 속에 만나는 인물들</li> <li>▪ 교회 도서관 개방을 통한 독서 활동</li> <li>▪ 시낭송대회</li> </ul>
<p>믿기와 참여하기:집단 상호 작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단 상호작용과 참여를 통해서 지식을 얻고 사회적 책임을 구성해가도록 하는 것.</li> <li>▪ 신앙공동체 및 교회 소그룹을 통한 참여와 상호작용에 집중함으로써 지식을 인격화하는 것이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룹조사</li> <li>▪ 공동체 신문 만들기</li> <li>▪ 심층적 성경공부: 성경공부 전 자기말로 본문 개요를 써보고 오늘날의 의미에 대하여 그룹에서 토론하고 주석서를 참고하여 성경을 해석해 가는 과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요 스포츠 교실</li> <li>▪ 가족과 함께 하는 산책</li> <li>▪ 악기 배우기</li> <li>▪ 박물관 탐방</li> <li>▪ 계절이 오는 소리 듣기</li> <li>▪ 요리교실</li> <li>▪ 공감과 소통 프로젝트</li> <li>▪ 기아체험</li> <li>▪ 양로원 방문</li> <li>▪ 주말 농장 운영</li> </ul>
<p>믿기와 만나기: 간접적 의사 소통 모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간은 합리성, 구조, 훈련 이상의 것을 포함한다는 전제를 기초로 종교와 교육의 전반적인 개념을 확장시키는 삶의 한 방식</li> <li>▪ 예술 및 자연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새로운 이해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방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림 감상</li> <li>▪ 영화, 연극, 감상</li> <li>▪ 낙엽그림책 만들기</li> <li>▪ 뜨개질하기</li> <li>▪ 노작교육</li> <li>▪ 글쓰기</li> <li>▪ 꽃꽂이</li> </ul>
<p>믿기와 깨닫기: 인격발달 모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험으로 배운다는 경험주의, 행함으로 배운다는 발견 학습방법</li> <li>▪ 학습자에게 자기표현과 자기발견 등을 통해 성숙한 신앙과 인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현활동: 연극 및 음악으로 자기표현, 그림 그리기, 글쓰기, 공동기도문 작성, 그림책 만들기, 영성일기쓰기, 천연염색해보기 등</li> <li>▪ 지각훈련: 장애체험, 기아체험 등</li> <li>▪ 창조적 문제 해결법: 공감력 기르기 활동, 원활한 소통을 위한 대화방법등</li> </ul>

<p>행동과 반성: 행동 반성모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독교인이 행동을 통해 신앙을 심화시키고 신념을 명확히 하도록 장려하는 방식</li> <li>▪진리의 행함을 통해 진리를 알아가고 기독교적 삶을 일상적 삶으로 구체화 해 갈 수 있도록 돕는 방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견학 및 직접 체험학습</li> <li>▪ 지역내 생태기행, 박물관 박물관 역사현장 방문,</li> <li>▪ 꿈이 있는 삶터-생태도시 만들기 프로젝트</li> <li>▪ 환경오염 사진전시회</li> <li>▪ 갯벌체험 가을철 열매 맛보기</li> <li>▪ 철새와 텃새를 만나러 가기, 5억년 전으로의 여행</li> <li>▪ 카메라로 찍어보는 우리 자연의 모습</li> </ul>

4) 프로그램의 예시

**제목: 돋보기 들고 떠나는 소풍 (현장체험학습프로그램 개발연구/환경부, 참조)**

목표:

돋보기를 들고 떠나는 소풍을 통해 평소에는 무심히 지나가는 자연을 시각을 바꾸어 줌으로써 전혀 다른 세계로서 바라 볼 수 있게 해 주는 교육활동이다. 산이나 들판에는 많은 생물이 살고 있지만 평소에는 그다지 우리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돋보기를 사용하여 봄으로써 창조세계의 신비함을 발견하고 작은 세계를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프로그램의 목표이다.

1) 실시조건

대상: 4세부터 모든 연령가능

시기: 언제라도 가능

장소: 초원이나 공원, 습기가 적은 숲등

소요시간: 30-1시간

준비물: 돋보기 참가자 수대로, 실

2) 진행

-마이크로의 세계를 이야기 하고 참가자에게 동기를 부여한다.

-돋보기로 방법을 실습해 보인다.

(1미터 정도의 실을 땅위로 펼친다, 실 주위에 무엇인가 움직이는 것이 있는지 찾는다., 주변을 주의하면서 실을 따라 천천히 전진한다.

-돋보기사용법에 대해 주의를 시킨다.

-실과 현미경을 주고 게임을 시작한다.

-벌레를 발견하지 못하면 함께 찾아준다.

-벌레가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 돋보기를 통해 본 세계는 어떠했는지 서로 이야기 한다.

### 3)유의할 점

-곤충은 따뜻한 시간대에 잘 움직이지만 한여름 퇴약벌에서는 오히려 땅속으로 숨는다는 것을 유의한다.

-돋보기로 태양을 보지 않도록 주의한다.

-흩어져 관찰할 때에는 활동 범위를 정해준다.

## VI. 주 5일 수업제, 미래 교육의 준비를 위한 출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 5일 수업은 ‘놀토’의 의미만으로 아니다.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인 새로운 변화의 시대로 한걸음 다가가는 것을 의미한다.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따라서 행복하고 즐거운, 새로운 교육적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사교육, 또는 교육소외의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미 여러 기관에서 교회에서 주 5일 수업을 두고 다양한 시도 및 준비들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놀토’를 위한 ‘프로그래머’로서의 교육의 역할을 벗어나서 교회가 주 5일 수업제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변화되는 미래사회의 교육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본 글에서는 각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여건들을 고려하여 구체적 프로그램을 제안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새로운 변화가 교회교육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적 이정표를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주 5일제 수업 단순히 수업을 안 하는 토요일의 의미를 넘어서는 교육적, 사회적 문화적 방향의 전환을 의미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교육적으로는 학교중심의 교육에서 학교-가정-교회-사회가 구조적으로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통전적이고 전인적인 교육을 해 가는 책임을 좀 더 공유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전환이다. 따라서 교회는 교육주체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가정 안에서 신앙교육 및 전인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과 지표를 제시하는 주요한 나침반적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한 부모교육, 가정교육 등의 구체적 프로그램을 통하여 부모가 교육적 역할에 대한 기독교적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적 활동이 ‘가정’을 살리는 활동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속회도 ‘가족속회’등 가정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교육적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체험중심의 교육활동을 다양화하여 재미있으면서도 유익

한 교육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학교-가정-교회-사회와의 연계되는 교육구조를 가능케 하기 위하여 교회는 제자직으로서의 교회 역할뿐 아니라 시민직으로서의 교회의 역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주 5일 수업제가 실시됨으로 체험교육, 현장교육의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할 수 있는 학습자를 위한 교육 경험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러한 교육환경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소외 아동들을 위한 돌봄의 교육을 위한 교육적,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회교육의 다양한 활동 중 봉사와 선교적 차원의 다양한 활동들을 구체화함으로써 사회 안에서 교회가 해야하는 빛과 소금으로써의 역할을 아동시기부터 경험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 교회가 지역공동체로서 교육 코디네이터 역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교회가 교회만을 위한, 교인만을 위한 교육이 아닌 사회교육, 교회 밖 사람들을 위한 교육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교회가 지역상황 및 교회의 여건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에게도 개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교회의 다양한 시설을 지역교회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교육적 시설로 개방하고 제공함으로써 교회가 지역사회의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개설되고 운영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교회의 아동 및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코디네이터의 역할도 필요하다. 교회의 여건상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럴 경우 개교회가 아닌 지역교회, 사회지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유용한 교육정보 탐색 및 다양한 프로그램이 가지는 교육적 효과 및 가치 분석을 통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참여하는 것도 유용한 교육적 활동이 될 수 있다.

**네 번째, 지속적인 교육적, 제도적, 인적 인프라 구축이다.**

다양한 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 사회 및 문화의 변화를 감지하고 수용하는 제도적인 변화, 또한 영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교육전문가 양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것은 체계적이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이 필요한 것이다.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통하여 이제 시작되는 주 5일 수업이 가져오는 교육적, 사회적, 문화적, 신앙적 의미의 변화를 한발 앞서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